

# Wael Shawky

## Al Araba

2019.11.29—2020.1.31

## Al Madfuna

Barakat Contemporary is holding *Al Araba Al Madfuna*, an exhibition of works by contemporary Egyptian artist Wael Shawky, from November 29, 2019 to January 31, 2020.

One of the most important contemporary artists in the Middle East, Shawky has presented works with narratives where fact and fiction intermingle through a variety of media including drawings, paintings, and installations, with a focus on films. Reinterpreting existing historical narratives, the artist has addressed concepts regarding artistic, religious, and transnational identities based on extensive research and investigation on history and mythology.

Along with the film *Al Araba Al Madfuna III*, this exhibition showcases Shawky's latest drawings and paintings. A trilogy, *Al Araba Al Madfuna* is a film inspired by the artist's visit to Al Araba Al Madfuna, a town that possesses ancient ruins and used to be the capital of a dynasty in Upper (southern) Egypt. Having witnessed the locals dig the ground in search of hidden treasures and seek to unearth their ancestors' secrets through alchemy and spiritual activities, Shawky overlays this mysterious experience with the contents of "Sunflowers" from *Tales from Dayrut*, a short story collection by Egyptian prose fiction writer Mohamed Mustagab, to reconstruct the narrative as a dreamlike film.

Shawky's films turn a broad range of themes and abstruse issues into fascinating epic poems. In addition to providing profound reflections on history and tradition, the lyrical visual language that he uses serves to translate the history of the Arabs and the Middle East, which have become fixed through a Western perspective, into contemporary narratives. However, the message conveyed by the artist is not based on a perspective biased toward any one world but points in the direction of healing that encompasses both worlds. Requiems that console the present through his works, narratives of historical contradictions and pain are prayers wishing for a new beginning for the human race in the present and the future alike and have the power of declarations.

Through the history of the Middle East and the mysterious tales originating from the region, Shawky has posed sharp questions regarding existing historical descriptions and continued provocative explorations. Such action on the artist's part prepares a new path for overcoming national and regional boundaries and identities, which contemporary art has ceaselessly challenged, and creates room for imagining stories after that transcendence.

# Wael Shawky

## Al Araba

2019.11.29—2020.1.31

## Al Madfuna

### WAEEL SHAWKY

Wael Shawky was born in 1971 in Alexandria, Egypt. Currently, he divides his time between his hometown and Philadelphia. His major recent solo exhibitions have been held at venues including the Castello di Rivoli (2016) and the Fondazione Merz (2016), both in Turin, MoMA PS1 in New York City (2015), Serpentine Galleries in London (2013-14), and KW Institute for Contemporary Art (2012). His major recent group exhibitions include the 14th/9th Istanbul Biennial (2015, 2005), 11th Sharjah Biennial (2013), 13th documenta (Kassel; 2012), 9th Gwangju Biennale (2012), and 50th Venice Biennale (2005). Since 2015, Shawky has established MASS Alexandria, an educational program, in his hometown and provided support to young artists in the area.

### <Additional Information>

#### 1) *Al Araba Al Madfuna III*

Based on Mohamed Mustagab's short story "Sunflowers," *Al Araba Al Madfuna III* consists of the colors of film negatives. Leading viewers into pharaonic remains, the film presents unfamiliar and bizarre images, as if exploring the relics of a long-forgotten alien civilization. The night sky is represented as a blind, white blank, and the stars are represented as little black dots. Young boys look like numerous ghosts floating across the horizon, and their torches seem to absorb the light around shining nebulas. When the point of view leads viewers down into the tomb, the interior is surrounded by fluorescent sculptures, whose gleaming bodies are covered with the profiles of gods and pharaohs carved thousands of years ago. In this scene, some of the children cook food. Others create pottery. At times, they go through swamps by the Nile River and rock cliffs in the surrounding valley. Amidst experiences of such bizarre, hallucinatory scenery, Mustagab's story continues.

#### 2) Mohamed Mustagab (1958-2006), *Tales from Dayrut*

Mohamed Mustagab was an Egyptian prose fiction writer born in Dayrut in Upper Egypt. He constructed parable-like works that expose the illusoriness of power in beautiful poetic Arabic. His *Tales from Dayrut* is a collection of short tales and myths that have been transmitted in Dayrut.

#### 3) "Sunflowers" (2008)

"Sunflowers" recounts changes to and the downfall of a village due to changes in the residents' attitudes toward the usage of bizarre sunflower seeds. In this tale, sunflowers, which at one time are mere byproducts of the villagers' farming, unexpectedly start to wield considerable influence on the community and kill other crops, thus spelling disaster for the village in the end. What at first seemed to be the objects of a chance hobby and a symbol of wealth at last reveal themselves to be the power of catastrophes and ruination, the community is torn asunder, and only a forgotten story remains.

In the film *Al Araba Al Madfuna III*, Shawky seeks to reveal the truth of a dystopian world through the story of a village from which tradition has disappeared. In other words, while communal spirit provides a basis for shared experiences, due to the rise of misunderstanding and indifference in the transmission process, such relations are damaged, thus leading to mutual constraint and collective disappearance in the end. This work was created as a historical aftermath of the Arab Spring and the Egyptian Revolution of 2011.

# Wael Shawky

## Al Araba

2019.11.29—2020.1.31

## Al Madfuna

바라캣 컨템포러리는 2019년 11월 29일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 이집트의 현대 미술 작가 와엘 샤키의 <알 아라바 알 마드푸나>전을 개최한다.

중동 지역의 가장 중요한 현대 미술 작가 중 한 명인 와엘 샤키는 영상을 중심으로 드로잉, 페인트, 설치 등 다양한 매체로 실제와 허구가 혼재하는 내러티브의 작품들을 선보여왔다. 기존의 역사적 서사를 재해석하는 작가는 역사와 신화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와 조사를 토대로 예술적, 종교적, 초국가적 정체성에 대한 개념을 다룬다.

바라캣 컨템포러리의 이번 전시에서는 영상 작품인 <알 아라바 알 마드푸나 III>을 비롯, 신작 드로잉과 페인팅 작업을 소개한다. 총 3부작인 <알 아라바 알 마드푸나> 영상 작업은 고대 유적 도시이며 과거 이집트 남부의 수도였던 알 아라바 알 마드푸나 마을을 방문했던 작가의 경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지하에 묻힌 보물을 찾으려 땅을 파고, 연금술과 영적 행위를 통해 선대의 비밀을 찾아가는 마을 주민들의 활동을 목격한 와엘 샤키는 당시의 신비로운 경험 위에 이집트 소설가 모하메드 무스타잡의 소설 『다이루트의 우화들』에 수록된 단편 ‘해바라기’의 내용을 오버랩시켜 몽환적인 영상으로 재구성했다.

와엘 샤키의 영상 작업은 폭 넓은 주제와 난해한 이슈들을 흥미로운 서사시로 만든다. 작가가 사용하는 서정시와 같은 영상 언어는 역사와 전통에 대한 깊은 성찰과 함께 서구권의 관점으로 고착된 아랍과 중동의 역사를 현대적인 서술로 번역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와엘 샤키가 건네는 메시지는 어느 한 세계에 편향된 관점이 아니라 양자를 아우르는 치유의 방향을 가리킨다. 역사적인 모순과 고통의 서사는 그의 작품을 통해 과거를 위로하는 레퀴엠으로서, 현재와 미래의 인류가 나아갈 새로운 시작을 기원하는 기도이자 선언과도 힘을 갖는다.

중동 지역의 역사와 그 땅에 비롯된 신비로운 이야기를 통해 와엘 샤키는 기존의 역사적 서술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며 도발적인 탐구를 지속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작가의 행보는 현대 미술이 끊임 없이 도전하고 있는 국가성과 지역성의 극복에 새로운 길을 예비하고 그 극복된 후의 이야기를 상상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

### 작가소개 — 와엘 샤키 WAEL SHAWKY

와엘 샤키는 1971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다. 현재는 알렉산드리아와 미국의 필라델피아에서 거주하며 작업하고 있다. 최근의 주요 개인전으로는 이탈리아 토리노의 카스텔로 디 리볼리 현대 미술관(Castello di Rivoli, 2016)과 메르츠 재단(Fondazione Merz, 2016), 뉴욕의 모마 PS1(MoMA PS1, 2015), 영국 런던의 서펜타인 갤러리(Serpentine Galleries, 2013-14), 독일 베를린의 KW 현대 미술관(KW Institute for Contemporary Art, 2012) 등이 있으며, 주요 그룹전으로는 14회/9회 이스탄불 비엔날레(2015, 2005), 11회 샤르자 비엔날레(2013), 13회 카셀 도큐멘타(2012), 9회 광주 비엔날레(2012), 50회 베니스 비엔날레(2003) 등이 있다. 와엘은 2015년부터 알렉산드리아에 ‘매스 알렉산드리아(MASS Alexandria)’ 학교를 설립하고 지역의 젊은 작가들을 지원하고 있다.

참고 자료

1) <알 아라바 알 마드푸나 III *Al Araba Al Madfuna* III>

무스타잡의 ‘해바라기’ 이야기를 기반으로 하는 <알 아라바 마드푸나 III>은 반전의 필름 색조로 되어있다. 파라오의 폐허 안으로 들어가는 이 영상은 마치 외계인이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외계 문명의 폐허를 탐험하는 것처럼 낯설고 기이한 이미지를 보여준다. 밤하늘은 눈먼 흰색 공백으로, 별은 작은 검은색으로 나타난다. 어린 소년들은 수평선을 가로질러 떠다니는 여러 개의 유령처럼 보이고, 그들의 햇불은 빛나는 성운 주변의 빛을 빨아들이는 것으로 보인다. 사이클로 페인 무덤으로 내려 가면, 그것들은 내부가 형광빛의 조각들로 둘러싸여 있고, 그것들의 광채나는 몸은 천년 전 벽에 새겨진 신들과 왕의 프로필로 뒤덮여 있음을 보여준다.

이 장면에서 아이들 중 일부가 요리를 한다. 다른 사람들은 도자기를 만든다. 때로 그들은 나일강 늪지대 또는 주변 계곡의 암석 절벽을 통과하기도 한다. 이러한 기이한 환각 풍경을 경험하는 가운데 무스타잡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진다.

2) 모하메드 무스타잡 Mohamed Mustagab (1938—2006) 『다이루트의 우화들 *Tales of Dayrut*』

모하메드 무스타잡은 남부 이집트 다이루트 지역에서 태어난 이집트의 소설가이다. 권력의 허상을 드러내는 우화적인 소설을 시와 같이 아름다운 아랍어로 구성한다. 그의 저서 『다이루트의 우화들』은 다이루트 지역에 내려오는 짧은 우화, 신화를 엮은 모음집이다.

3) 해바라기 *Sunflower* (2008)

‘해바라기’는 기이한 해바라기 씨앗의 사용을 가지고 부족 사람들의 태도의 변화로 인해 생겨나는 마을의 변모와 붕괴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한때 마을 농사의 부산물이었던 해바라기가 예기치 않게 마을에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며 다른 농작물을 교살하여 결국 마을을 재앙에 빠뜨린다는 이야기이다. 처음에는 우연한 취미와 부의 상징으로 보였던 것이 마침내 재앙과 종말의 힘으로 드러나고 마을은 찢기고 잊혀진 이야기만 남게 된다.

<알 아라바 알 마드푸나 III> 영상에서 와엘 샤키는 전통이 사라진 한 마을의 이야기를 통해 디스토피아적 세계의 진실을 드러내고자 한다. 공동체 의식은 공동의 경험을 위한 토대를 제공하지만 전승 과정에서 오해와 무관심의 발생으로 인해 그러한 관계는 훼손되어 결국 서로간의 구속과 집단적인 사라짐을 초래하였다는 것이다. 이 영상은 이집트와 아랍의 봄의 역사적인 여파로 만들어졌다.